

# 사상 최저 年1.25%금리 나오나... “제로금리 시대 임박”

### 한은 내년 통화정책에 관심집중 전문가, 기준금리 1.0%까지 전망 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거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린다면 연 1.25%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본격적인 초저금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한은이 금리를 내릴 명문은 많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큰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에 이어 'D(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의 공포'까지 번지고 있어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올해 성장률의 전망치(2.2%) 달성이 녹록지 않다”며 금리인하 시그널을 보낸 상태다.

#### ◆기준금리 내리면 1.25% '사상 최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6일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전세계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지난 8월부터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동결을 고수할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이는 지난 7월 3년 만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내리는 셈이다. 연 1.25%는 우리나라 역대 최저 기준금

리다.

지난 11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1.28%로 현재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통상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인다. 이미 채권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는 의미다.

한은 내부에서도 기준금리인하 신호는 꾸준히 나왔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

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둘기(통화완화 신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또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이 소수의견으로 ‘0.25% 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 금리동결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데 동의한 데다 7월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 ◆‘제로(0)금리’ 시대 오나

시장에서는 10월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인 11월에는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금리인하가 확실시 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내년 통화정책 방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1.0%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0%대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제로금리 시대가 임박한 것이다.

특히 미 연준이 한은의 통화정책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

75~2.00%로 0.25% 인하한 이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지난 8월 금통위 이후 여러 공식 석상을 통해 지속적인 시그널을 준 만큼 이번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이번 10월 인하를 마지막으로 기준금리인하 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내년 초 추가 인하를 단행해 1% 기준금리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는 물가보다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인 산출갭이 더 유효하다”며 “내년 전망치를 대입해 산출갭을 구해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단기간에 멈출 것 같지는 않다”며 “최소한 두 차례 이상 금리인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을 고려해본다면 내년에는 기준금리 1% 이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과기정통부, 데이터·AI 활성화 발표 (인공지능)

### APEC TEL 정례회의

정책공유 통한 협력방향 모색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실무그룹(APEC TEL) 하반기 정례회의'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실무그룹(APEC TEL)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실무그룹은 아·태지역 내 정보통신분야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 정부 대표, 관련 기업 및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행사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 및 '5G 플러스 전략'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역내 정책 공유를 통한 정보통신기술 분

야의 협력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 행사의 개회사를 통해 “APEC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운정 기자 echo@

## 한수원, '계획예방정비' 3년간 823건누락

작업 수행이력 확인불가 가장 많아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는 원전관리에서 계획예방정비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관리 실태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진행했던 원전 계획예방정비에서 정비항목을 823건이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의 계획예방정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일정기간마다 원전 가동을 멈추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정비로서 원전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실시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부터 3년간 823건에 해당하는 작업항목에 대해 예방정비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 중 ▲이전작업 수행이력의 확인불가로 누락 ▲이후 수행주기를 재등록해야 했던 경우 등이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

##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금융기관 심사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완화 대기업·가계는 대출 까다로워져

올해 4분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완화된 반면 대기업과 가계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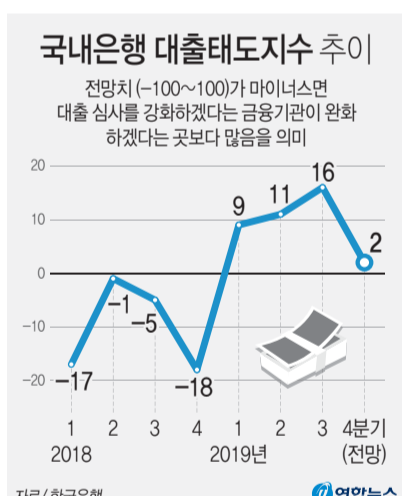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로 3분기(16)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한은이 199개 금융기관 여신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국내 대출태도지수가 낮을수록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4분기 가계 일반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3분기(7)보다 내려갔다.

같은 기간 가계 주택담보대출지수도 3에서 -3으로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대내외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2020년 신(新)예대출 규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전



망”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도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3분기(10)보다 하락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7로 3분기(27)보다 낮아졌지만 은행들의 우량 중소기업 확보 경쟁 등으로 대출 문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우량 중소기업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리스프레드가 줄어들거나 한도가 증액되는 등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모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23으로 3분기(22)보다 1포인트 올랐다. 신용위험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17로 3분기(10)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의 신용위험도는 10에서 13으로 3

포인트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은 30으로 3분기(33)보다 3포인트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은행은 4분기 중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기업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중소기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은행권 대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 하락, 주택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4분기 가계 주택담보대출(10)과 일반대출(13) 모두 대출수요가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수요지수는 0으로 중립이었다. 중소기업 대출수요지수는 17로 3분기에 이어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비은행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4)을 제외한 신용카드회사(-13), 상호금융조합(-19), 생명보험회사(-1) 등 모든 업권에서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용위험도 상호저축은행(16), 신용카드회사(19), 상호금융조합(26), 생명보험회사(12) 등으로 비은행 모든 업권에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대출수요는 상호저축은행(-8)과 상호금융조합(-11) 등을 중심으로 대체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주 기자